위대한 유산

(고전3:16~23)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8.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위대한 유산'은 영어의 원제가 'Great Expectations'라고 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부제가 신분상승의 욕망과 사랑입니다.
1861년에 완성된 소설로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은 빅토리아 여왕시대입니다.
영국이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한 마디로 금전만능주의의 시대에요.
금전만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의 신분을 타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금전만능주의 시대가 되면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류사회에 진입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류사회에서 심한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므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예절과 교양이 갖추어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젠틀맨입니다.
신사, 영국신사라는 말이 바로 이 빅토리아 시대 때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 인간상이 바로 이 신사였습니다, 신사.
이러한 시대적 정신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 줄거리의 뼈대 자체로만 보면, 좀 식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읽히는 소설이에요.

소설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핍이라고 이름 하는 한 고아 어린아이가 영국의 시골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같은 지역에 있는 부잣집에 에스텔러라고 하는 한 어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는 지금 대장장이 노릇을 하는 자형 네 집에서 대장장이 일을 배우며 살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너무 천하고 가난하고 창피한 그런 신분임을 자각하게 되면서, 이 어린아이가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텔러라고 하는 부잣집 딸을 짝사랑하면서,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을 마음에 가득 담고 자라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익명의 대부호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이 핍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주어집니다.
이 핍이 그 돈을 가지고 늘 꿈꾸어왔던 신사가 되기 위해서 런던으로 가고, 신사교육을 받고 젠틀맨으로서 영국 이 상류사회에 진입해서 생활을 하는데, 신사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정의와는 다르게, 실제로 모든 영국 런던의 상류사회에 속한 신사들의 삶이라는 것이 낭비, 사치, 타락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점차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핍이라고 하는 청년도 결국은 이런 속물적 가치관에 젖어들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핍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신사의 자격은 사전적인 정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이 풍부하게 있고 그럴듯한 외양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다 신사로 인정받고 행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요.
이게 바로 금전만능주의 사회가 만들어 낸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겁니다.
신사라는 이름이지만, 그 신사의 내용이 바로 속물이라는 거예요, 속물.
이렇게 속물이 되어서 살고 있을 때, 그 익명의 부호가 정체를 드러내고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어린 시절에 죄수 한 명에게 먹을 것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 죄수가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핍에게 증여했던 그 은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사

람이 재판에서 죄수가 돼버리고 병이 나고, 그와의 만남에서 그 죄수를 싫어하다가 점점 그 혐오감을 극복하면서 죄수와 인간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죄수가 재판에서 지게 되면서 죄수에 의해서 증여되었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실 속에서, 그동안 돈이 있으므로 신사가 되었고, 신사가 되어서 속물로 살고 있으면서 망각하고 있었던 진정한 인간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자기성찰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막대한 재산이 주어졌을 때, 이상적인 인간상, 이상적인 신분인 신사의 계층에 속하지만, 결국은 그 막대한 재산을 갖고 도달할 수 있는 그 신분계층이라는 게, 속물들의 신분계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잃고 나서야 참된 인간성으로 찾아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각자에게는 익명의 부호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막대한 재산이 물질이 증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막대한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이 없으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앙인다운 삶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다운 삶의 내용과 질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내용과 질이 신앙인다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막대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증여받은 자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아의식이 있어야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답게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사실은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도 Great Expectations 라는 말은 유산은 아니에요.
그 영어 원제를 그대로 번역하면, 위대한 기대, 기대감 이런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두루뭉술한 그런 차원에서 유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유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유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신앙인으로서의 삶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이해해 가는 순서를 거꾸로 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21절과 22절, 23절부터 이해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 뜻을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이 지구 위에, 뭐 지구 밖에 있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북극성도 우리 것이고 뭐 정말 달도 우리 것이고, 태양도 우리 것이지만 말 그대로 직역해서 적용하면 관계없는 것이니까, 이 지구 위에 국한시켜서 얘기하자면, 쉽게 말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 게 아니에요, 내 거라는 얘기에요.
이 성경말씀을,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말들, 으레 하는 말이려니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그대로 뜻을 직역해서 내게 적용하면,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 것이고, 레리 페이지가 대표로 되어 있는 구글 사가 내 것입니다.
멀리 구글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삼성이 내 것이고, LG가 내 거고, SK가 내 거라는 얘기에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앞에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했습니다.
그 점을 이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건희 씨 본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건희 씨 뿐만 아니라, 이 건희 씨가 갖고 있는 삼성도 내 거라 이겁니다.
그게 내 거인데 왜 내가 그걸 자랑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것에 종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아볼로를 추앙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말이 바울을 추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LG 가 내 건데, LG의 회장을 왜 내가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겁니다.
만물이 내 건데.
말 그대로 그냥 봐요, 왜 만물이 내 거냐 라는 얘기를 나중에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나는 게바를 존경한다, 아볼로를 존경한다, 바울을 존경한다 하면서, 그에게 소속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는데(그의 추종자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식으로 바꾸면, 나는 한 경직 목사님을 존경한다, 곽 선희 목사님을 존경한다, 김 삼환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헤아려서 말을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말씀 그대로 직역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한 경직 목사님이 내 거에요.
김 삼환 목사님이 내 거에요, 곽 선희 목사님이 내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를 떠받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말라,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내 거이니까.
도대체 한 경직 목사님과 곽 선희 목사님과 김 삼환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이 내 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가 23절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유하는 주체와 소유되는 대상의 주객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지금까지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23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소유하는 방향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국 '너희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과 앞에 말한 얘기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교회 전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고 하면, 왜냐하면 교회 전체가 잘못 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에게 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십자가에서 연합해 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내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풀려나오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때, 아버지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중간단계이고, 그리고 이 중간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이 몸을 통해서 세상에 빼앗겨 있다가 마음이 회수되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날마다 우리가 반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극받고, 날마다 실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점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뜨겁게 애인을 사랑하면서 남녀가 연인이 됐다고 합시다.
그 사이를 누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연인사이가 먼저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에요. 하나님보다 부부관계가 더 먼저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부부가 낳은 자식들, 우리 부부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을 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이게 아직 하나님 것이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 마음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모든 것에 대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에 대해서 죽고, 남편에 대해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육체의 목숨에 대해서도 죽습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마음이, 관심이.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것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경직 목사님을 볼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통하는 바람에 그 한 경직 목사님의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마음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경직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한 내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

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삼성 그룹이 이 건희 씨 거라고 세상은 알고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삼성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삼성의 모든 것을 나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상 사람들은 빌 게이츠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제일 먼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과 제일 먼저 마음이 벌거숭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제일 먼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빌 게이츠 씨의 소속이라고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볼 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빌 게이츠 씨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회수하셔서 나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또 못 믿는 이유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알 마음으로, 그냥 벌거벗은 마음으로, 그 무엇과도 만나지 않고 맨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상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달을 내 머리 위에 100m까지 끌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중력과 모든 관계 다 개선하시고, 밀물과 썰물과 태풍과 이런 관계 아무것도 없이 만드시면서, 달을 내 100m 위까지 끌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지요.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제일 먼저 만나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것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곽 선희 목사님도 내 거이고, 곽 선희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곽 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곽 선희 목사님을 쓰고 계시는 것이지, 곽 선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교인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태승철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제일 먼저 붙어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승철이라는 인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물이 다 내 거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내 거이고, 삼성도 내 거인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핍의 생애의 과정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이 아니라도, 물론 거기에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기독교적 덕성을 가진, 정말 젠틀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신사라고 하는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정말 지독하게 신실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막대한 재산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몸과 붙어있는 존재의 구조로부터 나오는 죄적 근성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속물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속물이 된다는 것은, 돈을 숭배하는 그러한 반 하나님 적(的), 반 신앙적, 반 십자가적 인간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막대한 재산이 내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그 분의 사랑으로 모든 걸 나를 위해 세상적인 의미에서 다 내 것으로 주실 수 있지만, 그걸 주셨다가는 내 영혼이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것이 되면, 그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왜 주시냐 하면, 마음으로 제일 먼저 만난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조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제일 먼저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일이 되면 성전이 되는데, 이 일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교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써,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다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벌거벗은 마음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아내를 먼저 만나고, 애인을 먼저 만나고, 돈을 먼저 만나고, 먼저 다른 걸 담게 되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여기라'는 이 말도 무슨 얘기냐 하면, 막한 재산이 천하 만물이 다 내가 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날 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줘버리셨을 때(우리에게),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내 소유가 되게 확 줘버리셨을 때, 우린 다 속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우리는 지혜 없는 자처럼 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답이 없다!
돈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차를 사고 싶어요, 내가 지금은 차를 사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다는 상태가 지혜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정답대로 행동을 하면서 돈을 쓰며 살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완전 세상 속물이 되어 버리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자들이에요.
돈을 주셔도 쓸 수 있는 정답을 모르는 자들이고,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경제적인 형편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만물의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만물의 소유주로서 만물을 내가 지금 소유하게 될 때, 재산을 갖고 돈을 갖고 하게 될 때, 내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의 핍처럼 반드시 속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을 줘도 돈을 쓸 수 있는 정답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삼성도 내 것이 되게 해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단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게 내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 안에서 필요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만물을 유산으로 받은 위대한 유산의 상속자들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만물이 내 것이라는 이 장난처럼 들리고 농담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내 뼛속

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소유인 만물의 사용을 적절하게 조정하심으로써, 지금의 내 형편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